



# China

베이징지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건강식품시장



### 회복기에도 지속될 소비 트렌드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 중 하나로 분류된다. 정확하게는 ‘신체 조절 기능이 있지만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닌 식품’을 의미한다. 건강식품기능의 범위는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내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2,613억 3,000만 위안이었고, 2017년에는 2,938억 9,000만 위안에 달하여 전년대비 12.46%가 증가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그 규모가 약 4,500억 위안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중국 내 면역력 강화와 영양제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각종 코로나19 예방수칙에서도 충

분한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진료방안(시행 제4판) 해설(<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诊疗方案(试行第四版)解读>에서는 장(腸)내 미생물 조절제를 섭취하여 장내 환경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래 몇 가지 기회요인을 통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자.

### 노소를 막론하고 건강 중시하는 분위기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억 5,000만 명으로 인구의 17.9%에 달한다. 최근 몇 년 간 노년층 소비가 급증하여, 2050년에는 노인 소비 규모가

61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고령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건강기능식품은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적다는 기존의 통념이 이 세대에 이르러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식품시장의 지형도를 바꾸어놓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새로운 소비주체의 등장과 소비개념의 전환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 급속히 발전될 전망이다.

일상생활 속 건강식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1인당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 상점, 마트, 전문점 등 다양한 구매 채널이 등장하였으며, 소비구조의 변화와 함께 온라인 구매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식품의 구매 경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동시에 온라인과 결합된 O2O(Online to Offline) 형태도 점차 나타날 것이다.

### 건강기능식품분야의 세분화 및 품목의 다양화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는 전 세계 건강식품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 비중이 약 50%에 가깝다. 이 밖에도 다이어트, 운동 보조식품, 전통 건강식품 등 세분화된 품목들도 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은 더 세분화되고, 품목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 분야는 이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앞으로 쏟아지는 정부의 정책들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중국2030(<健康中国2030>)>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 재활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헬스케어 분야의 정책으로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중국보건협회 부이사장 자야광(贾亚光)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제도정비를 통해 관련 업계

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3년 사스 비상시국에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 시장은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 | 건강식품을 판매중인 징둥닷컴 |



### | 지속적이고 건강한 <건강중국(健康中国2030)> |



Key Point

우리만의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국진입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뒤에는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수반되고, 정부는 이러한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내수확대와 소비 진작으로 경제활동을 부추긴다. 또한 그동안 억눌린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최대한 회복시키기도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중국 내 건강 및 위생의식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단편적으로 여겨져 왔던 건강업계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해 인신의 전환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홍삼제품처럼, 우리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특화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국시장의 건강 열기를 타고 불어날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